

“갈등의 지구촌, 작품으로 평화메시지 띄워”

100년 역사 중 중앙미술학원 첫 외국인 수석졸업 광주출신 정성준 씨



조선대를 졸업한 서양화가 정성준(33)씨가 세계적인 미술명문대학인 중국 중앙미술학원 유화과 석사과정을 최근 수석 졸업했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미술학원 유화과 첫 외국인 수석 졸업생이다.

중앙미술학원은 천단칭, 광리쥔, 리유에, 리우사오둥, 위홍, 쉬빙 등 세계 미술계에서 내로라하는 작가들을 배출한 미술대학으로, 중국 ‘8대 미술학원’ 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명문이다.

현재 중국 북경 798예술지구 인근 흑교 예술촌에서 작업실을 얻어 전업 작가로 생활하고 있는 정씨는 이메일로 만났다.

정씨가 중국을 택한 이유는 사실주의 미술 때문이다. 대학시절 사실주의 미술에 매료돼 학교를 휴학하고 자비를 털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미술대학으로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졸업 후 미국, 독일, 러시아, 영국 등으로 유학을 고민하다가 세계미술시장 중심지로 급 부상한 중국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난 2009년 중앙미술학원 석사과정 입학목표로 택한 중국 행은 만만치 않았다. 학교 인근에 방을 얻고 이후 1년 동안 오전에는 중국어 학원을, 오후에는 화실에 다녔고, 밤에는 늦은 시간까지 중국어 능력시험(HSK)을 준비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부담이 컸습니다. 입학을 준비하는 중국인 지원자는 물론 유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입학 시험은 4일간 어학시험, 동서양 미술사 시험, 4가지 실기 시험으로 치러 지는데 준비할 것도 많았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요.”

정씨는 매일 이어지는 인체 유화와 소묘 수업, 그리고 보충수업을 하면서 기본기를 다시 다져나갔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창작 위주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주목받을 수 없었다. 학교가 끝나면 교수님을 찾아다니며 창작과 현대미술에 대한 경험을 배워나갔다.

고등학교 시절 미술학원비도 제때 내지 못했던 정씨였기에 해마다 오르는 물가와 월세, 급변하는 환율은 그에게 큰 고비를 안기기도 했다. 대학 시절부터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주)효석 김호수 회장의 도움이 컸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미술을 만날 수 있었죠. 중국 작가들이 세계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유행에 민감한 한국미술과 달리 자신들만의 독특한 화풍과 정체성을 유지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화과에서는 중국은 물론, 대만, 프랑스, 미국, 일본 등 각국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사고를 확장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의 졸업 작품은 유화인 ‘평화의 소리’와 ‘그들의 탐욕’ 그리고 영상작품인 ‘우리들의 희망’이다. 이 작품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에서 소년이나 딸을 연주하면서 평화의 소리를 퍼트린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가 최

근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는 ‘여행’테마 작품의 연작이기도 하다. 영상작품은 이를 디지털 매체로 확장, 더욱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 관객들에게 쉽게 전달한다.

“최근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는 보편적인 견해와 달리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아직도 분단 상황에 놓여 있는 남과 북에 주목했어요. 영문도 모르고 서로 총을 겨눴던 우리의 아픈 과거,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아직도 세계 각국에서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전쟁, 영토분쟁, 내전, 테러, 종교 문제 등을 다루고 싶습니다. 평화의 소중함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어요.”

그는 현재 과거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처럼 세계 각국에서 젊은 작가들이 모이고 있는 흑교 예술촌에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상업성보다 예술성이 강한 작품을, 철학적인 작품보다 더 현실적이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그리는 것이 그의 꿈이다.

“전업작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점점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난을 이겨내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북경에서 개인전을 할 예정입니다. 매일 식당에서 어렵게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평화의 소리’(위)와 ‘그들의 탐욕’



강제욱 작 ‘습지-순천만’

남해를 다시 보다

‘남해안 프로젝트전’ 순천 1839갤러리

상상문화발전소1839는 오는 30일까지 순천 1839갤러리에서 ‘남해안 프로젝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전남문예재단 2013년 거주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839 사진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강제욱, 김미경, 박진명씨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남해안 프로젝트는 남해 연안 지역의 역사, 인문, 지리적 가치를 재조명해 보면서 지역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획전시다.

참여 작가들은 올 한해 남해안 풍경을 고찰하면서 시간, 삶을 근거로 한 작업과 남해안의 변화하는 환경, 심미적 풍경, 삶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했다.

상상문화발전소1839는 사진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기획,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연기획, 출판,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10-4185-1839. /김경민기자 kki@



고희자 작 ‘프라irie’

사실주의 미술에 매료

정체성 강한 中 화풍 인상적

흑교 예술촌 작가 활동

내년엔 북경서 개인전



송영학 작 ‘귀중한 소녀들의 쇼’

두 작가, 표현에 대한 고찰

광주미협, 11일까지 ‘한국화대전 수상작가’ 송영학·이재량 초대전

광주미협(회장 정순이)은 오는 1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2012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수상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해 대상 수상 작가 송영학과 최우수상 수상 작가 이재량이 초대됐다. 두 작가는 표현방식과 매체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한 결과물인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조선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송씨의 소재는 반인반수로, 현대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중관념을 드러낸다.

이테면 화폭에 아름다운 원피스 입고 손에는 저마다 쇼핑백을 든 소녀들

이 즐겁게 거리를 거닐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동물로 표현됨으로써 묘한 웃음과 긴장감을 주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특히 그는 인간의 이중의식을 강렬한 원색의 색채대비로 표현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긴장감을 돋보이게 한다.

신라대를 졸업한 이씨는 ‘채워지다’와 ‘채워가다’를 주제로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시킨 작품을 보여준다. 그는 장중한 먹의 느낌들이 커케이 쌓여 있는 화면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간다. 문의 062-222-357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유럽 도시 산책

고희자 초대전 31일까지 휴랑갤러리

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철) 사옥 1층에 있는 ‘휴랑갤러리’(관장 한명화)는 오는 31일까지 서양화가 고희자 작가를 초대해 전시회를 연다.

휴랑갤러리는 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문을 연 갤러리다.

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베네치아, 프라하 등 유럽의 도시 풍경과 월출산 등 국내 자연 풍경을 화려한 아크릴 색채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과 부산 등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다수의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는 송원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명화 휴랑갤러리 관장은 “앞으로 다양한 전시기획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제약 없는 표현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360-31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겨울 기차여행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1(연일동)1층 신세계백화점 5가리
※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주최 KORAIL 한국관광공사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남이섬 기차여행 (12월24일)

시간	일정
00:05	광주역출발/가평역 도착
07:00	남이섬/김유정문학촌관광
11:40	춘천소양댐 관광
13:10	춘천먹거리 자유중식
21:53	춘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79,000원 소아 59,000원

동해 추암 촛대바위 일출 기차여행 (12월31일)

시간	일정
22:00	광주역출발/동해역 도착
06:40	추암 촛대바위 새벽 일출
09:00	천곡동굴 관광/속초루 관광
12:10	속초어시장 자유중식
22:30	동해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99,000원 소아 70,000원

태백산 눈꽃 열차 (1월 매주 금요일)

시간	일정
21:45	광주역 출발/태백역 도착
06:00	태백산 동반 및 관광
12:00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탑승
22:05	고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85,000원

정동진 일출 열차 (1월 매주 금요일)

시간	일정
21:45	광주역출발/태백역 도착
06:30	정동진 일출 및 관광
12:00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22:05	고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85,000원

하이원 스키장 시즌버스 매일 왕복

시간	일정
03:00	염주체육관 주차장
03:05	신세계 백화점 육교 밑
03:10	문화예술회관 육교 밑
08:00	하이원 스키장 도착
16:30	하이원 스키장 출발
21:30	광주도착

1일 왕복요금 50,000원
리프트카, 장비렌탈(주중60%, 주말 50%) 할인 적용